

BizDragon

September 2011

# Emerging Market Daily\*

파라과이 주택시장 동향

September 30, 2011

# 파라과이 주택시장 동향

오동희 (BizDragon 대표이사)<sup>1)</sup>

## 루고 대통령,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한 노력 촉구

8 de Marzo 협동조합이 Luque의 Moras Cué 마을에 주택 건설을 시작함으로써 파라과이의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에 대해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파라과이 대통령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집이 없어 고통 받는 시민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길 바란다. 현재 80만개의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가 이 주택을 모두 짓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한 그는 더 저렴한 주택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민간단체 및 협동조합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협동조합이 함께 노력해서 시민들이 주거비용을 차후에 지불할 수 있도록 집을 덜어주어야 한다”라고 루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는 한편 Aña Cuá 수력발전센터 공사는 2천 개의 직접적인 형태의 일자리와 4천 개의 간접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파라과이에 있어서 상당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루고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치적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파라과이 EBY 대표인 Miguel Fulgencio Rodríguez와 아르헨티나 대표인 Oscar Thomas는 오늘 Ayolas 시에서 공사 입찰을 시작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

1) BizDragon 대표자 오동희는 아르헨티나의 통신사인 Global Crossing Latin America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Universidad Palermo 대학과 UADE 대학에서 마케팅 교수를 역임하였음. 현재 중소기업청의 해외민간네트워크(아르헨티나)과 INKE(글로벌벤처네트워크) 부에노스아이레스 의장을 맡고 있음.

## **파라과이, 듀플렉스홈 형식의 주택 건설 선호하는 세계적 추세 쫓아**

최근 듀플렉스홈 건설은 주택 건설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이며 파라과이 또한 이러한 붐을 따라가고 있다.

지난 8월 개최된 ‘2011 주택 박람회’에서 파라과이 건축협회 회장인 María Luz Cubilla는 듀플렉스홈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형태의 건축은 지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주택을 짓는 비용도 저렴하다.” 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많은 나라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도시가 고립되고 서로간의 교류마저 없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점차 폐쇄되고 있으나 파라과이에서는 치안문제로 인해 주택소유자들이 다른 여러 가족들과 모여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타운하우스 건설회사인 Casa Sueño의 책임자 Analía Sosa는 듀플렉스홈을 건설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은 Fernando de la Mora와 Luque 라고 밝혔다. Casa Sueño는 Villa Elisa와 Fernando de la Mora Zona Norte 이 두 지역에 듀플렉스홈을 건설했다. 집 가격은 2억 3,500만 과라니부터 5억 5,000만 과라니까지이다. 보증금은 1,000만 과라니이며 총 금액 중 20%는 업체에서 융자하고 나머지 80%는 은행융자로 처리된다.

또 다른 주택건설 업체인 Inmobiliaria Interamericana는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따라 듀플렉스홈 건설로 방향을 돌렸다. 대표인 Rómulo Campos는 듀플렉스홈은 일반주택 가격의 60%이며 토지도 절반만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올 연말 Loma Pytã 지역에 첫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16%의 연이율로 36개월까지 융자하여 판매하게 된다. 가격은 약 4억 과라니이다.

Inmobiliaria Confort 역시 Mariano Roque Alonso와 Luque 지역에 듀플렉스홈을 건설할 예정이며 비용은 보증금 4,000만 과라니에 매달 130만 과라니씩 180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 **사랑의 집짓기 단체 ‘Un techo para mi país’가 San Pedro에 도착**

사랑의 집짓기 단체인 Un techo para mi país(이하 UTPMP)가 San Estanislao 와 Yrybucú의 지역에 있는 여러 원주민 거주지에 조립식 목조 주택을 짓는 등 San Pedro 주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Un techo para mi país는 Yrybucúa 지역의 Vy'arenda를 비롯하여 Centro, Mburukuja, Arroyo Sa'yju 원주민 마을 등 모두 4곳에서 집짓기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San Estanislao 지역에서는 11 de Febrero와 Julián Jara, Santa Rosa, San Cayetano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연령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의 불우한 가정  
에 편히 지낼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  
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본 사업의 책임자인 Soledad Núñez는 이 집짓기 봉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경험이 되며, 이러한 경험은 San Pedro의 각 마을에서 활동하는 과정에  
특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두드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업의 기본 목표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특히 변변한 지붕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만의 안락한 주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 < 참고자료 >

La Nacion ([www.lanacion.com.py](http://www.lanacion.com.py))

ABC ([www.abc.com.py](http://www.abc.com.py))